‘풍류남도’ 나들이 오세요

가야금 명인 황병기 소쇄원

광주문화재단 체험형 문화관광 프로그램 … 가사문화권·광주호 호수생태공원 등서 진행

소쇄원 ‘풍류정원 달빛공연’ 환벽당 ‘무예 학당’ 등
20일 개막 원장현 대금 연주·황병기 ‘소쇄원 사계’ 발표
충효·지실마을 게스트하우스·‘누정 원정대’ 운영
10월 15~16일 ‘누정 문화제’ 누정별 체험 프로그램

우리 옛 선조들은 경치 좋은 정자에서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겼다. 가야금 한 곡조에 세상을 노래하고 시 한글귀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담양 소쇄원 등 우리나라 대표 가사문화권 일대에서 공연·인문학 강의·투어를 통해 누정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이 이번달 체험형 문화관광프로그램 ‘풍류남도 나들이’를 본격 시작한다. 무등산권에 자리 잡은 누정·가사문화권과 충효동 왕버들군, 광주호 호수생태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체험·공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시, 광주 북구, 담양군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은 2018년까지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시범 운영한다. ▲관광기반구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마을공동체 등 3개 분야·7개 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이달 공연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탐방로 개발 등이 추진된다.

소쇄원 일대에서는 매달 보름달께 토요일 오후 7시 ‘풍류정원 달빛공연’이 열려 국악 공연과 함께 달빛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매주 토·일요일에는 ‘광풍 풍류학교’가 열려 전문소리꾼과 함께 판소리 단가·해금 배우기 등 문화예술체험이 진행된다.

환벽당에서는 매달 1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른 인문학 강의’가 열린다.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30분에는 ‘환벽 무예학당’을 운영해 택견 등 전통무예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식영정에서는 매주 주말 다도를 체험하는 ‘선비학당’, 매월 1회 족보를 공부하는 ‘보학(譜學)학당’이 열린다.

담양 출신 대금 명인 원장현

충효·지실마을에는 누정문화마을 경관 조성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주민해설사 투어 등을 운영한다. 매달 1박2일 일정으로 ‘누정문화 원정대’도 꾸린다. 원정대원들은 스탬프 투어, 한복·유생복 체험, 청년 플리마켓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0월15~16일에는 ‘누정 문화제’ 막이 오른다. 광주호 생태공원에서는 회방현(回榜宴·과거 급제 60돌 기념 잔치) 재현, 체험부스 등을 운영한다. 한국가사문학관에서는 청소년 한시 낭송 경연대회, 명옥헌에서는 누정사진페스티벌, 왕버들기원제 등이 진행된다. 또 환벽당에서 전국어린이바둑대회가 개최되는 등 누정별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오는 20일 오후 6시30분 소쇄원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서는 대금 명인 원장현 선생이 독주곡 ‘소쇄원’과 ‘날개’를 연주할 예정이다. 원 명인은 담양 출신으로 원장현류 대금산조 창시자이며,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장을 역임했다.

이어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이 소쇄원을 모티브로 작곡한 ‘소쇄원의 사계’를 발표한다. 제자 지애리(가야금), 김웅식(장구)씨가 연주하고, 황 명인이 직접 해설할 예정이다. 창작 가야금 음악 창시자 황 명인은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ARKO 한국창작음악제 추진위원장 등을 지냈다.

마지막 무대는 광주시립국극단이 관람객들과 함께 하는 ‘달빛어울림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강강수월래, 달타령, 진도아리랑 등 모두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문의 062-670-5744, 574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두레라움’ vs 문화전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자는 부산영화의전당(이하 영화의전당)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 지난 2011년 10월 14일, ‘영화의전당’이 폭우로 인해 천장에서 1층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는 광경을 TV 뉴스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면서부터다. 하필이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당일에…. 비록 남의 동네(?) 일이었지만 국제적 망신을 산 것 같아 마음이 찜찜했었다.

그래서일까. 영화의전당 하면 가장 먼저 ‘그때일’이 떠오르곤 했다. 그날 이후 영화의전당을 끼고 있는 해운대를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선뜻 건물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했다. 이유는 단 하나, 즐길거리가 없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영화제 전용관인 만큼 매년 10월 행사기간에만 볼거리가 풍성할 거라고 짐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최근 취재차 둘러본 영화의전당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영화제 기간이 아니면 한산할 것이라는 내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선율이 방문객의 발길을 끌어당겼다 진원지는 야외극장의 ‘두레라움 토요콘서트’. ‘두레라움’은 ‘다함께 즐긴다’는 뜻의 영화의전당 애칭. 4000석의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지역 출신의 성악 앙상블 ‘보컬스’의 환상적인 하모니를 즐기며 시원한 ‘한여름의 밤’을 보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매주 수요일 밤 8시에는 야외극장의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빨간 머리앤’ ‘심야식당’ ‘그렇게 아버지가 되다’ ‘헝거게임’ 등 연령과 계층에 맞춘 가족영화, 음식영화, 꽃 황혼, 판타지 액션 등이 1년 내내 상영된다. 영화의전당 메인 상영관인 중극장(413석)에서는 최근 개봉작인 ‘부산행’ ‘덕혜옹주’ ‘국가대표 2’가, 소극장(212석)에서는 ‘이레셔널 맨’ ‘나의 딸’ ‘비거 스플래쉬’ ‘마일스’ 등의 예술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뭐니뭐니해도 영화의전당의 강점은 10여 명으로 구성된 시네마테크팀의 기획력이다. 국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예술영화와 고전영화들을 시네마테크팀이 해외를 돌며 직접 선별해 들여오기 때문이다. 관객입장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골라 보는 ‘작은 영화제’를 연중 즐기는 셈이다. 여기에 영화의 저변을 넓히는 다양한 아카데미를 진행한 덕분에 작년 한해 80만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뒀다.

오는 9월이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부분개관한 지 1주년이 된다. 아직 개관 초기라고는 하나, 브런치 콘서트(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나 특별 이벤트가 아니면 썰렁함, 그 자체다. 사람 구경하기 힘든 문화전당을 보고 있으면 민망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 물론 대중적인 장르인 영화와 관객 층이 넓지 않은 동시대 현대예술(문화전당)콘텐츠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1년 365일 불 꺼지지 않는 영화의전당을 보면 상대적인 허탈감에 빠진다. 혹여 정부의 무관심이나 예산 부족을 탓하며 문화전당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제발 이런 기자의 생각이 오해이기를….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성공회센터, 여성을 위한 ‘청노루글쓰기교실’

광주성공회센터는 지역 여성을 위한 ‘청노루글쓰기교실’을 운영한다.

다음달 5일부터 4개월 간 매주 월요일(오후 7시~9시) 남구 월산동 광주성공회문화센터(화성회관 건물 3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글쓰기에 관심 있거나, 자신의 일상을 글로 담고 싶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사는 희곡작가인 김영학(사진) 조선대 교수다. 김 교수는 이번 글쓰기교실에서 문장 및 단락 쓰기, 묘사 및 서사 쓰기, 일상을 기록하는 법, 에세이 쓰는 법, 글쓰기 치료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강의를 희망하는 수강생은 내달 5일까지 다음 카페 ‘청노루글쓰기’ 공지사항에 댓글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수강료 무료, 선착순 30명. 문의 010-5642-9263.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